| 현불 논단 |

감사의 마음, 깨달음의 길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5월은 감사 · 사랑 가득한달
부처님오신날도 5월에 있어
자비 정신의 의미 되새기길

불교의 자비, 연기법서 비롯
자신의존재 · 삶 향한 사랑을
모든 존재로 확장하는 의미

행복한 사회 위한 근본 처방
연기법 체감 · 자비실천 있어

코로나의 질곡 속에서도 오월은 왔다. 독일의 서정시인 H.하이네는 '아름다운 시절 5월에' 라는 시에서 오월을 이렇게 찬미하고 있다.

"온갖 싹이 돋아나는/ 아름다운 시절 오월에/ 내 가슴속에서도/ 사랑은 눈을 떴소/ 온갖 새가 노래하는/ 사랑하는 시절 오월에/ 사랑을 참다못해/ 님께 나는 하소연했소."

5월의 달력을 보니 그야말로 사랑과 감사의 달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세계인의 날도 있다. 그리고 붓다가 이 지구별에 오신 달이다. 오월은 붓다의 자비 정신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인 것 같다. 불교의 자비 사상은 연기법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온 것이다. 붓다가 밝혀낸 연기법은 경이롭고 위대한 사상이다. 초월적 대상에 대한 신앙 없이 연기법이 토대가 되는 종교가 지구별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가. 연기법에 의하면 모든 존재는 시방삼세 존재자들의 상호적인 관계에서 나온 선물이다. 따라서 연기에 대한 깨달음은 자신의 존재와 삶이 우주적 연쇄의 존재가 주는 선물임을 깨닫고 다른 존재에 깊은 감사를 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비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 느끼는 사랑을 다른 형태인 모든 존재에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월의 행사를 보니 대부분 '가까운' 사람에 대한 감사의 날이다. 어린이, 부모, 부부, 스승 등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이를 강조하는 것을 보니 이것도 그리 쉽지 않은 모양이다. 이런저런 가정사의 비극을 보면 짐작이 가기도 한다. 필자는 '바르고 행복한 사회' 를 만들기 위한 제일 근원적인 처방이 연기법과 자비라고 생각한다. 연기법을 체감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바르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길이다. 자비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첫걸음이 모든 존재에 대한 감사이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다른 존재의 '덕분'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사의 마음을 가까운 사람뿐 만 아니라 '먼 사람', '모르는 사람'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체에 확대하는 것이다. 〈자비경〉의 일부 내용을 인용해 보자.

눈에 보이는 것이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건,
또 멀리 살건 가까이 살건,
태어났건, 태어나려고하고 있건,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전 우주를, 그 높은 곳, 그 깊은 곳, 그 넓은 곳
끝까지 모두를 감싸는 사랑의 마음을 키워라.
미움도 적의도 넘어선
잔잔한 사랑을.

필자는 이 〈자비경〉을 보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자비의 위대함이 장엄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현대 윤리학 이론에 '거시윤리학' 이라는 이론이 있다. 최근에 등장한 거시윤리학은 종래의 윤리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개인- 인간중심, 현재 중심의 미시적 윤리하고 비판하면서 오늘날 지구촌이 겪고 있는 도덕적, 생태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비경〉에는 거시 윤리학이 주장하는 이론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니 그 지혜가 참으로 드높다 하겠다.

오월에 붓다가 이 지구촌에 오셨다. 자비의 광명으로 지구별을 빛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우리 모두 모든 존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자. 이것이 자비 수행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바로 깨달음의 길이다.



담마끼띠 스님의
다문화법당서 보낸 편지

웨삭데이는 '최고의 날'

'부처님오신날' 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달력을 보니 앞으로 3주 가량 남았습니다. 웨삭을 기념하는 날, 즉 '부처님오신날' 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중국, 한국, 대만, 홍콩, 베트남과 같은 동아시아에서는 음력으로 4월 8일입니다. 인도,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등의 테라와다 불교 국가의 경우는 음력(인도 달력)으로 2월 보름입니다. 또 양력 5월 보름을 '최고의 날' 이라는 뜻으로 '웨삭데이(Vesak Day)' 라고 합니다. 이는 부처님의 탄생과 깨달음, 열반을 하나로 묶어 기념합니다. 그리고 불자들의 설날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웨삭데이 일주일 전부터 일주일 후까지 불교 축제 기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웨삭날과 다음날까지 국가 공휴일로 지정된 것에서, 스리랑카 사람들이 얼마나 웨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스리랑카의 정부 기관과 학교, 집 등 모든 곳에서 법회가 열립니다. 뿐만 아니라 연꽃, 별, 코끼리, 사각, 팔각의 다양하게 장식한 등을 밝힙니다. 또한 부처님의 본생경을 바탕으로 하는 불교 회화나 전구로 등을 장식하여 '아치형의 문(torana)' 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날 저녁에는 많은 사찰에서 일요일 법회 소속 학생들이 빠알리어와 싱할라어로 부르는 바끄띠 기타(찬불가, Bhaktigīta: 삼보께 예경하는 노래)를 곳곳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올해 마하위하라 사원도 '웨삭' 이라는 뜻 깊은 날을 맞아 여러 행사를 열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스리랑카 전통의 '팔각등' 을 만드는 것입니다. 스리랑카 전통의 '팔각등' 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사각형 4개는 사성제를, 삼각형 8개는 팔정도를 의미합니다.

마하위하라 사원은 5월 26일 웨삭데이를 맞아 스리랑카 전통 연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불자들이 각자의 집에서 연등을 정성스레 만들고, 사원에 달아 불을 밝혀 웨삭데이와 세계평화를 기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2일 저녁에는 온라인으로 바끄띠 기타(찬불가)를 부르고, 23일 오후 2시에는 법회를 올릴 예정입니다.

이날 마하위하라에서는 보리수 친견법회가 열립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자 네란짜나 강둑 위의 보리수 아래에서 안좌 명상에 들어가셨습니다.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는 7주간 삼매로 들어가시고 보리수 밑에 계셨습니다. 그때부터 보리수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나무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보리수에서 자라난 보리수를 한국에 모시고 왔습니다. 그날 보리수에 물을 주고 친견법회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고타마 싯다르타 '탄생' 불기 2745년이며 '성불' 불기 2710년이고 열반하신지 2665년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살아 있는 존재들이 욕망과 혐오, 그리고 어리석음에 기인한 수많은 열기와 열병으로 끝없이 타들어 가고 있다고 보고,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훌륭한 가르침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태어나지 않기 위해, 존재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지 않기 위해 한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정지의 길' 이라는 뜻으로 웨삭데이(부처님오신날)에 나라마다 다소 의미상의 차이점은 있지만 다들 그날이 되면 삼라만상에 특별한 의미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충남 아산 마하위하라사원 주지〉

社 說

자비나눔은 불자의 의무

지난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온 국민이 어려움에 처했던 한 해였다. 코로나 창궐부터 마스크 대란, 각종 업장 폐쇄와 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온 국민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불교계도 마찬가지였다. 사찰은 산문을 닫아야 했고, 법회 등 각종 행사는 중단됐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불자들의 자비행이 더욱 확산된 것으로 나타나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아름다운동행 2020연차보고서 결산 결과 구호분야와 현물기부분야의 모연액이 2019년 대비 2~3배씩 증가한 것이다. 코로나 상황에서 마스크와 생필품 기부부터 저소득층 지원까지 마음을 내는 불자들이 많았다는 증거다.

비록 사찰 문은 닫았고, 코로나로 봉사활동은 힘들었지만 마음 만은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사회에 희망을 주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 이 같은 성원 하에 아름다운동행은 코로나 극복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탄자니아와 미얀마 돕기 등 해외 구호까지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불교는 근현대사에서 기독교에 비해 사회기여에 소홀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산중 불교로 수행과 정신문화 창달에는 버팀목 역할을 했지만 사회 소외계층을 보살피는 종교의 역할에는 부족함이 많았다.

불교 대표 공익재단에 재난 때마다 많은 성금이 답지하고, 매년 기부액이 증가하는 것은 고무적이다. 앞으로 특정 사안 외에도 사찰 신도회비를 납부하듯 정기후원 또한 활성화 된다면 불교가 이 땅에서 보다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회는 급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소외받는 이웃은 늘고 있다. 부처님 오신날을 앞둔 지금, 자비실천에 마음을 모으자.

'비구니 수행결사'에 담긴 의미

전국비구니회가 비구니승가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수행결사를 입재했다. 단순한 수행결사가 아니다.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한국불교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실천행이다. 동시에 전국 사찰, 각 분야에서 수행과 포교, 기도, 사찰 운영에 매진하고 있는 비구니 스님들이 제각기 머문 그 자리에서 출가 본연의 근본정신인 수행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이다.

전국비구니회가 비구니 수행결사체를 발족한 것은 결코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이 미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상당수 비구니 스님들이 제각기 처한 상황에서 수행과 포교라는 수행자 본연의 모습을 이어가며 존경받고 있음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결사는 비구니 스님들이 승가공동체로서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복안이다. 비구니 수행결사의 근본도량은 전국비구니회 법룡사로 정해졌다. 비구니 스님이라면 누구나 방문해 수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 소임에 메여 안거에 들지 못한 스님은 매월 1회 정진을 통해 함께 수행하고 안거 이후 수행을 이어가고 싶은 스님은 산철에도 이곳에서 정진을 이어갈 수 있다. 법룡사에서의 정진은 일상으로 이어진다. 시대에 맞는 새로운 청규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결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결사가 이 시대 불교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청정 승가공동체의 새로운 모습을 제시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란 기대가 모이는 이유다. 종교의 위기가 거론되는 시대, 새롭게 시작된 비구니 스님들이 수행결사가 한국불교 미래에 어떤 화두를 던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